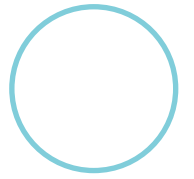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과학자, 예술가, 작곡가, 조향사 등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관내 에듀케이터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가 교육 강사로서 직접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 어린이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과 '사진'을 주제로 4년간 운영되었던
심화 교육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는 매년 새로운 주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람 관련 신화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려 했던 선조들의 노력들, 바람에 붙여진 각양각색의 이름들까지... 이렇게 바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사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과잉의 시대, ‘소리’ 정보 과잉의 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바람들의 소리는 자동차 소리와 공사하는 소리, 각종 기기들의 소리에 묻히고 말았지요.

그 많은 바람 소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바람을 찾고, 바람을 담아보는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사운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변 자연 현상인 바람의 다양한 소리를 발견하고 하나의 음악으로 조합해 봄으로써 시각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시각 이외의 감각, 특히 ‘청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지각하고 상상을 통해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집 곳곳에는
어린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녹음한 소리가 담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1. 휴대폰에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요



2. 검색창 옆 '네모' 모양을
클릭해요



3. 앗, 자료집에서 QR코드를
발견했어요!



4.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QR코드가 인식되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인사말

여는 글

2. 상반기 초등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1차시 : 바람을 듣다

2차시 : 바람을 모으다 I

3차시 : 바람을 모으다 II

4차시 : 바람을 만지다

5차시 : 바람을 풀어내다

3. 하반기 초등 저학년 가족 대상 프로그램

바람의 합주

4. 교육 후기

설문 결과

참여자 후기

우리의 모습들

5. 나가며

닫는 글

전문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내며

양원모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신나는 배움터’로 조성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기관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은 어린이박물관을 조성하기 몇 해 전, 러시아, 영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다큐멘터리 제작팀을 보내 미래교육의 본이 될 10개 학교를 취재한 바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만한 교육철학과 교육미학을 탐색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을 근접하여 기록하였으며 미래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과 교사들의 연구수업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미래교육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담겨졌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즐겨 찾는 현재의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 일할 즈음에는 우리 모두 탈후기 근대사회에 한참 진입한 후일 것입니다. 그 때를 예비할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은 어떤 형태의 교육일까요? 저는 미래를 엿보고 싶으면 공상과학 소설과 미래학 관련 서적을 들춰봅니다. 제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미래 교육 풍경은 『에코토피아』라는 SF소설 속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어니스트 칼렌버그라는 미국의 작가가 예술적 상상력과 사회적 상상력을 증폭시켜 마치 현장을 탐색하듯 생생하게 기술한 『에코토피아』에서는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프로젝트 수업의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동육아운동이 움터날 때 연구원이 주목한 것도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의 프로젝트 수업이 집중 조명되었지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뮤지엄 교육은 현재 새로운 전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도약하여 문화 소강국이 된 것은 높은 교육열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교육열이 도리어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장시간 노동 못지않게 어린이, 청소년들의 장시간 학습도 심각합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도 아주 많이 낮습니다. 교육을 미래 인재의 양성보다 서열화와 계층 상승 사다리로 받아 들인 결과입니다. 해가 갈수록 교육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환경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옛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뜻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나서서 자구책을 모색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실험실과 같은 뮤지엄 교육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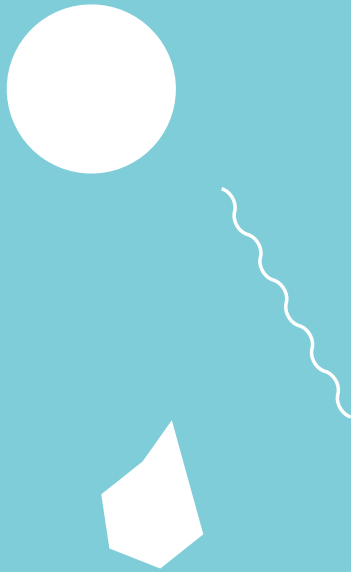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문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수업(과제수행학습)을 비롯하여 주제체험학습, 주제탐구학습 등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교육실험의 주·객관적 조건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10명과 함께한 다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소리채집과 소리만들기를 해보는 주제탐구형 과제수행학습(프로젝트 수업)으로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5주간 진행되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주말 학교가 되었습니다. 늦봄과 초여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사운드 제작 경험이 많은 유현식 작곡가께서 이끌어 주셨으며 우리 박물관의 김해송 큐레이터가 도우미교사로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하여 준 어린이들과 믿고 맡겨준 학부모님들이 있어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어린이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리소스센터 자료실에도 본 자료집을 올려놓으려 하니, 뮤지엄 교육의 공진화와 미래교육의 모색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 예술가가 물고 온 신바람!

전지영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일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요즈음 대규모로 운영하는 키즈카페(혹은 사설놀이공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성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박물관은 단순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쉬는’ 곳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맥락을 기반으로 펼쳐진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득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사고와 감성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성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일종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관 내에 어린이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도를 가지고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이 다른 상업놀이시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하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곳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 기능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요.

올해만 해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약 50여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었고 5만 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계형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체험 교육에의 관심과 참여도는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결과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편안함을 바탕으로 소위 예술이 갖는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를 경험하고 싶은 요구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갖는 한계는, 다수의 참여자들을 맞이하다보니 개개인의 생각과 감성을 면밀히 살피고 깊이 있게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참여 후기 중 ‘한 번 참여하는 것이 아쉽다’, ‘다차시의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볼 때마다 유독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심화된 과정으로의 욕구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에,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가, 문화예술 기획자들과 함께 교육-예술적 체득 과정을 심화시키는 특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2층에 새롭게 문을 연 <바람의 나라> 전시와 연계하여 ‘바람’을 청각과 연결시키는 ‘소리연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바람을 찾아서 담아본다’라는 다소 엉뚱한 주제를 가진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늘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기에 인식하기 어려운 바람의 존재를 청각으로 발견해보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바람소리를 직접 만들어도 보는 과정 중심의 심화 협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 함께 해주신 분은 유현식 선생님이로(컬처커넥션 대표), 최근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셨고 대학에서 사운드아트를 연구하며 실험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다정다감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멋진 예술가입니다.

유현식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무한한 상상력을 표출하는 것에 자신감을 주면서 각자가 가지는 경험들로부터 답을 찾아가도록 곁에서 자극점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을 찾아서 담는다’라는 생경한 박물관 기획의도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 본인도 이러한 상상 속에 어린이들과 풍덩 빠져보고 싶다고 하셨지요. 순간 정말 좋은 교육자를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간 기뻐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에 위치한 빨간색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몇 번 가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빨간 컨테이너는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씬 없이 뿜어내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더위쯤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듯, 어린이들과 교육 강사 선생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물음들을 나누었고 엉뚱발랄한 친구들의 이야기에 깔깔거리며 함께 뒹굴고 때로는 탄성을 질러 가며 서로에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진행된 수업 중에 이탈하거나 뚱 하니 흥미를 잃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자연 속에서 바람 소리를 채집하고 무슨 소리인지 상상해보고 직접 소리를 만드는 사운드믹싱까지 해보면서 그렇게 어린이들은 어느덧 바람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바람의 존재를 자신 안에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나 보기 좋았던지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일종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한 분야에 탁월성을 보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활동 주제를 아우르고, 올해의 경우처럼 소리채집이나 사운드믹싱을 위한 고기능 장비들이 동원되기도 하며, 참여 어린이들의 지적, 정서적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활동을 유도하는 교육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하지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은 기획 과정부터 진행까지 무척 많은 준비를 요하며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분들이나 어린이들의 반응을 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과 헤어지기 아쉬워 아이들이 내뿜는 한숨 소리가 시원한 바람처럼 제 마음 한 켠에 보람이라는 감정을 후욱 일으킵니다.

‘답다’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못 할 만큼 뜨거웠던 올 여름, 그 더위와 또 다른 차원의 뜨거움이 이번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을 달구어주었습니다. 짜증스럽거나 지치게 하는 뜨거움과 달리 열정과 애정으로 충만한 열기였기에 도리어 모두의 마음에 ‘시원한’ 기운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번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만나주신 유현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교육강사로 함께 참여해 준 김우준 선생님 그리고 이번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도맡아준 김해송 학예연구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박물관에 몰고 온 신바람으로 인해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신명나고 시원했습니다. 예술가와 함께 하는 이 시원하고 즐거운 바람을 내년에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유현식 | 초빙강사, 컬처커넥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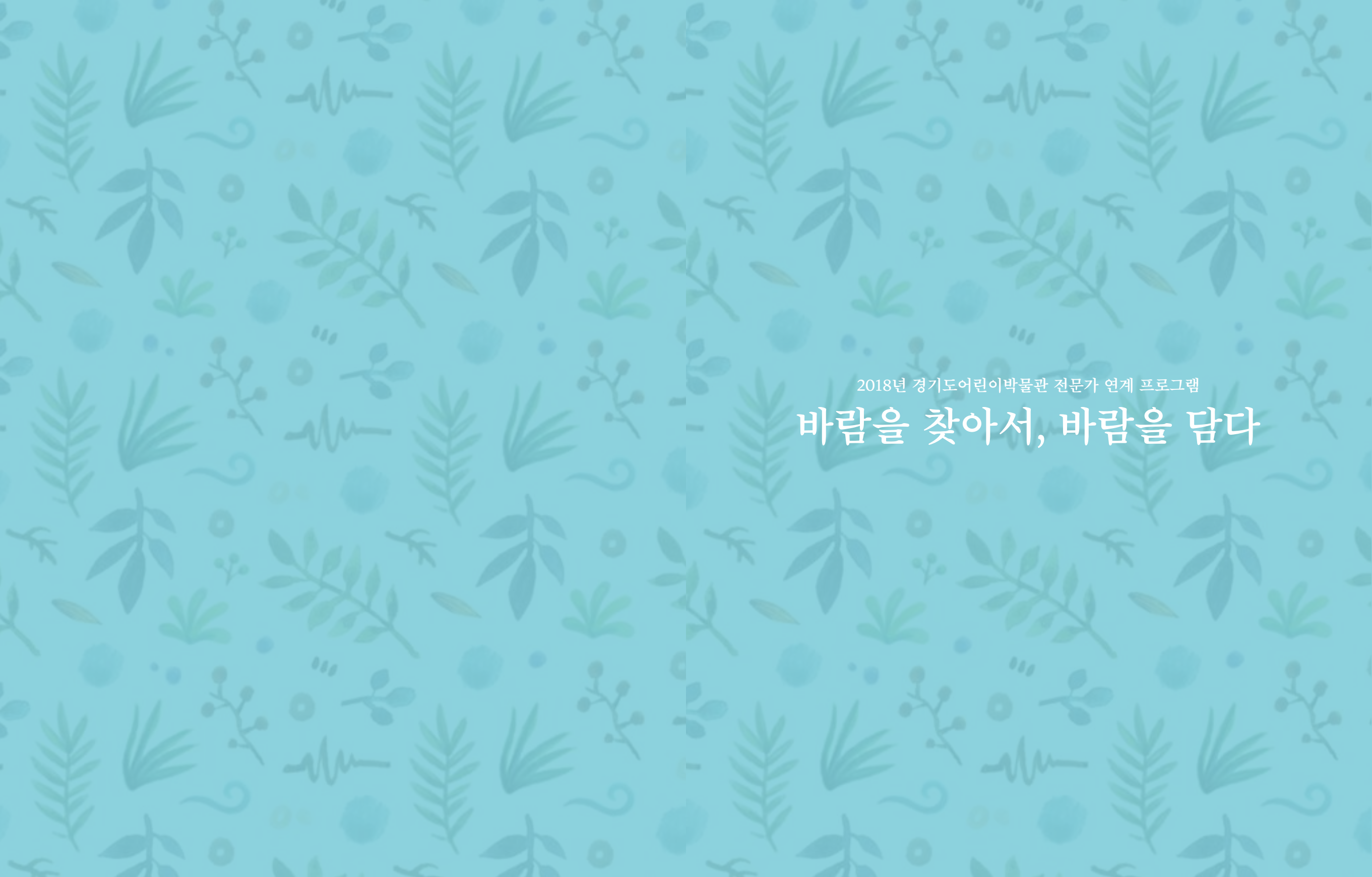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바람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바람을 다양하게, 잘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으로,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 이외에는 눈으로 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또한 냄새로 맡을 수도 없다. 다만 바람을 타고 있을 다른 물질들을 통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뿐인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리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을 찾아 녹음하여 담은 후, 녹음된 음원을 활용하여 각자의 소리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바람 소리는 공기의 이동을 통해 물질이 마찰되거나 작은 틈으로 빠르게 지나갈 때 발생하는 진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화되면서 소리로 들린다. 실체가 없는 바람 소리는 하물며 그 소리의 크기도 주변의 다른 소리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도시 소음이 있는 곳에서 바람 소리를 찾아 녹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영화나 여러 영상을 위한 소리 녹음을 할 때는 보통 ‘윈드스크린’이라는 장치를 마이크에 씌워, 마이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 마찰 소리를 제거하거나 줄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닌 마이크를 때리는 듯한, 듣기 거북한 잡음처럼 녹음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람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역으로 바람을 찾아 바람 소리만 담아야 하는 미션을 가지게 되었다.

여름이 막 시작할 무렵 어린이들과 바람을 찾으러 나섰다. 바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또 바람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동안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진지한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아내어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등 여러 감각들로 바람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청각으로 바람을 찾아 담아야 했기 때문에 녹음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도시의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또 내가 느꼈던 공간과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 곳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어떤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바람 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였다. 어린이들은 각자 원하는 재료들을 골라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느꼈던 바람 소리를 직접 만들어 내어 녹음하였다.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답이 있고, 획일적인 사고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잃지 않도록 자극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바람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 바람을 찾아 담는 직업적인 체험을 해 보기도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창의적 접근을 통한 예술 활동이기에 함께하는 첫 시간부터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다. 정답이 없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이 나오길 기대했으며, 참여하는 어린이들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가고 그 답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공기가 있는 곳이라면 크던 작던 바람의 존재는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곁에 항상 있어왔던 흔한 재료인 바람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예술 작품까지 만들었던 꼬마 작가들의 진지함은 기성 작가와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했고 창의적인 작품들 또한 신선하였다. 또한 각 부분 부분 의도한 바가 명확했고 개인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총 5주간에 걸친 프로그램이 어쩌면 길수도 혹은 짧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꽤 의미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스쳐지나가는 작은 것에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 그 감각을 통해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꼬마 작가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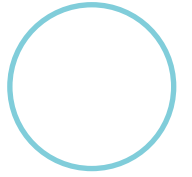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초등 고학년 대상 연차시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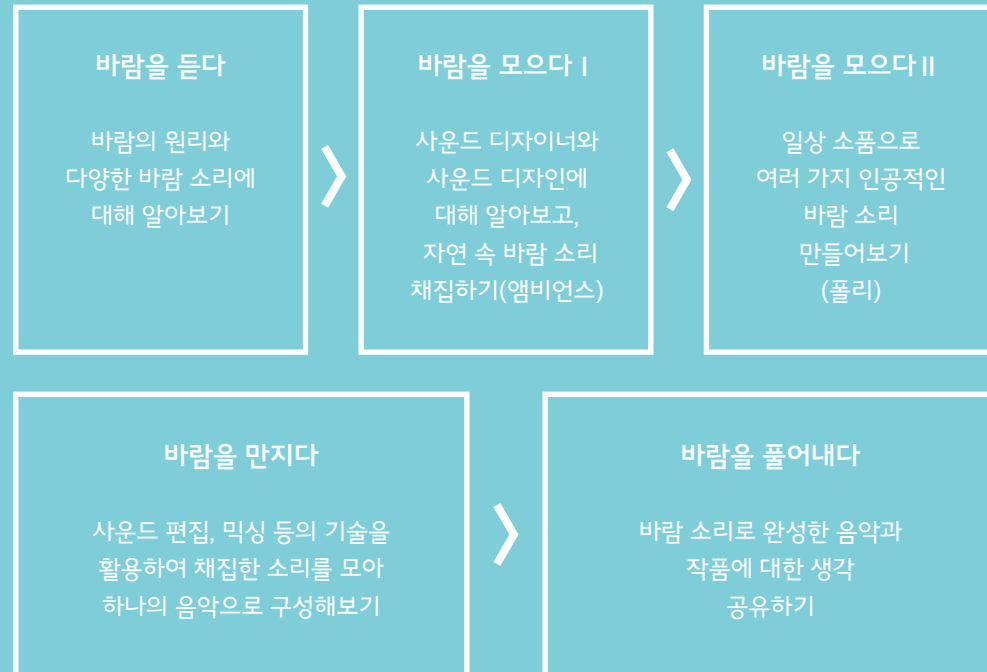


사운드 전문가(작곡가)와 함께 사운드 음향 효과를 중심으로 바람 소리를 탐색하고 채집한 후 하나의 음악(사운드 아트)을 만들어보는 초등 고학년 대상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개요

운영일시 : 2018년 5월 26일 ~ 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장소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 야외 꿈자람터, 3층 문화사랑방
배영환작 <도서관 프로젝트-내일>, 상갈공원
교육강사 : 유현식(성결대학교 겸임교수, 컬처커넥션 대표),
김우준(상명대학원 석사 재학), 김해송(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원)
참여 어린이 : 구유림, 박민지, 박서진, 박준성, 백하은,
손가윤, 이태석, 최은서, 최재민, 최준혁

진행 과정



1차시

바람을 듣다



“음, 거의 비슷한데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





“와, 시원하다.”

“소리도 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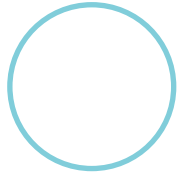






“힘을 합쳐야 해!”
 “아, 힘들어!”
 “조금만 더!”





2차시

바람을 모으다 I



“바람을 모을 수 있을까?”



“병을 휘익~ 움직여서 담아요!”
“솔직히 말해서 바람을 모을 수는 없어요.”

“아니, 바람은 공기라고 했으니까
공기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



“큰 풍선 안에다 그런 것들을
다 넣으면 모아지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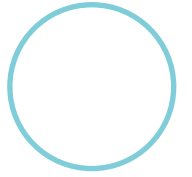


▲
QR코드를 통해
어린이들이 녹음한
자연 속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
QR코드를 통해
어린이들이 녹음한
자연 속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3차시

바람을 모으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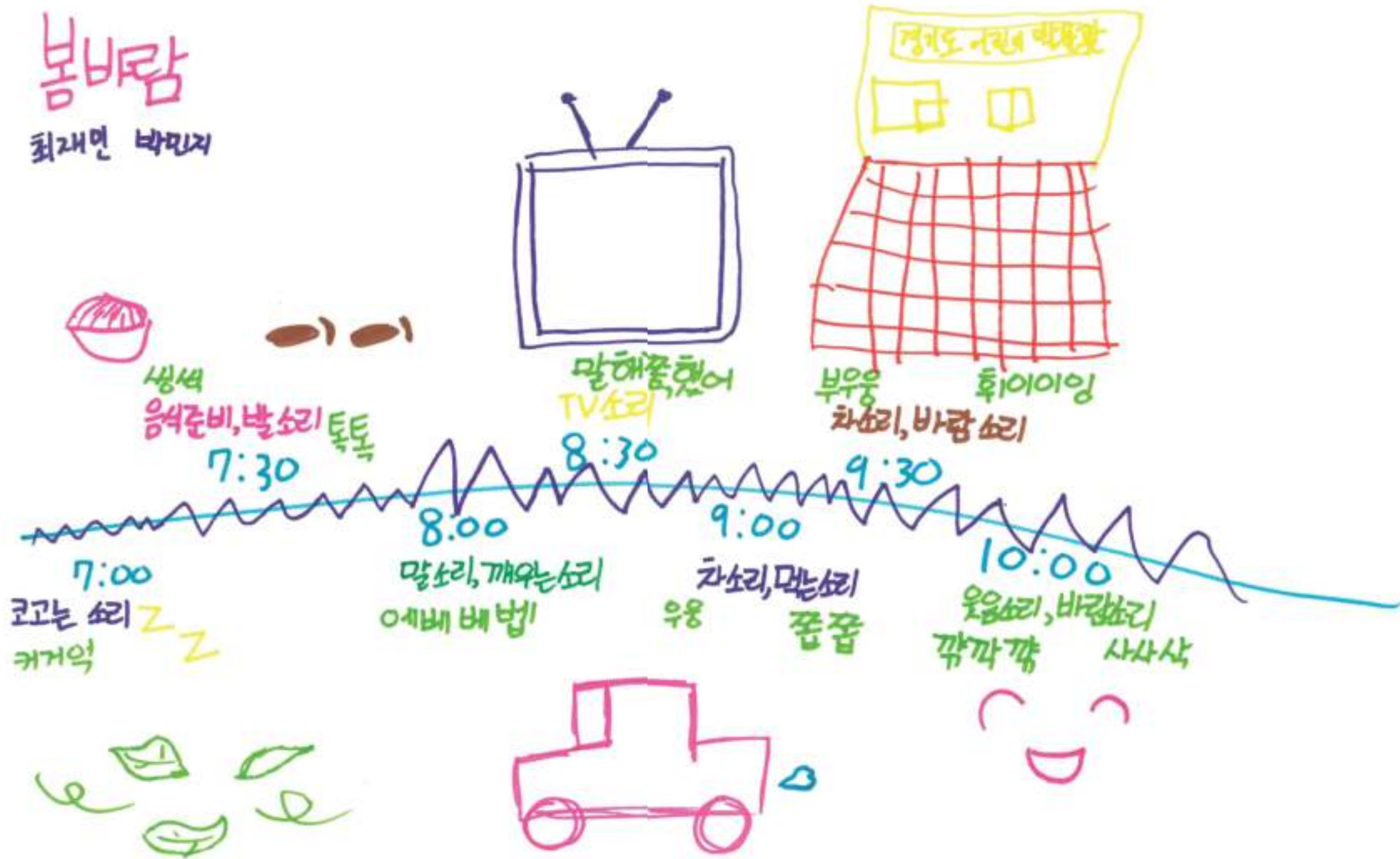
“우리가 저번 시간에 녹음한 소리
들어보니까 어때?”



“바람 소리는 잘 들리는데,
부석부석하는 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같이 있었어요.”

봄비람

최재민 박민지





“돼지 울음 소리는 정말 ‘꿀꿀’ 이라고 들리니?”





▲
QR코드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품으로 만들어
낸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
QR코드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품으로 만들어
낸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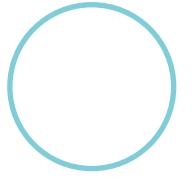


▲
QR코드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품으로 만들어
낸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
QR코드를 통해
어린이들이 소품으로 만들어
낸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4차시

바람을 만지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녹음했던 소리들을
다시 한 번 들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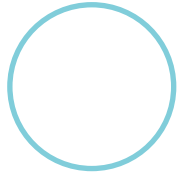












5차시

바람을 풀어내다



교수 학습지도안

사 업 명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 5차시 <바람을 풀어내다>		
기 간	2018.05.26.(토) ~ 06.23(토)	일 시	2018.06.23.(토) 10:00 ~ 12:00
대 상	초등 고학년(4~6학년) 10명	장 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 배영환작<도서관 프로젝트-내일>
재 료	아이패드 5대, 소리 만들기 재료(빈병, 보자기, 비닐봉투, 종이, 용수철 등), QR코드 스티커, 인터뷰 질문 종이, 활동 영상, 청각예술 작품 파일, 다과 등		
개 요	1~4주차 동안 다양한 바람(자연 속 바람과 바람 소리, 소품으로 만들어 낸 바람 소리) 과 연 계한 활동들을 돌이켜보고, 내면의 바람을 담아본다.		





“작업하던 한 줄이 없어졌을 때..
당황해서 다시 녹음했어요.”



“선생님의 ‘했다, 했다’ 하는 목소리 녹음된 거
그대로 작품에 쓸 때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녹음하면서 계속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 놓아야 그런 주제와 맞을까? 이러면서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아쉬움이 감돌아요.”

“그냥 하고 싶은 제목을 먼저 지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 다른 음악이 나왔어요.”



▲
산새
작가 - 박민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만들었는데
리듬이 새 우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려서
산새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
**포식자가 사냥하고
있는 상황**
작가 - 최재민, 이태석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공포영화

작가 - 박준성, 최준혁

소리가 공포스러워서 공포영화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병맛적인 어느 날

작가 - 손가운, 박서진

맨 처음에는 '화창한 어느 날'을
제목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상한 생각이랑 웃긴 생각이 나니까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누르고 했어요





▲
공포
작가 -백하은, 구유림

“공포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오케이, 그냥.”



▲
2018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상반기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요

초등 고학년 대상 연차시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2

바람의 합주

하반기



교육 개요

운영일시 : 2018년 9월 15일 ~ 10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00~12:00
교육장소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 야외 꿈자람터
교육강사 : 김우준 (상명대학원 석사 재학), 임현정, 유정민
참여 어린이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한 초등 저학년(1~3학년) 어린이 동반 가족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바람과 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청각을 통해 대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본디 소리가 없는 바람이 어떤 물질을 만나는지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 재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바람 소리를 담은 우리 가족 풍경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 학습지도안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2 - 바람의 합주			
기 간	2018.09.15.(토) ~ 10.27(토)	일 시	매주 토요일 11:00 ~ 12:00
대 상	초등 저학년(1~3학년) 동반 10가족	장 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 야외 꿈자람터
재 료	공기의 성질 실험상자, 나뭇가지, 금속, 종이, PVC, 실, 마스킹 테이프, 비즈, 방울, 깃털 등		
개 요	바람과 소리, 바람 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이 부딪치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 소리를 체감해보며 여러 가지 소품을 조합한 우리 가족의 풍경을 만들어 본다.		

활동내용	도입	○ 내가 만난 바람은? - 바람에 관한 기억 떠올리기	시간 (분) 5 분
	전개	○ 바람은 무엇일까? - 바람이란? :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 - 온도에 따른 공기의 이동 실험해 보기 - 연기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소리는 무엇일까? - 소리는 어떻게 나나요? : 나뭇가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때 소리 비교 (떨림을 통한 소리 발생) : 성대가 떨리는 형태에 따른 목소리 높낮이 변화 비교 - 소리는 매질을 통해 우리 귀로 와요. : 매질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예 - 사람, 박쥐, 돌고래 비교 : 매질은 공기와 물 뿐일까요? - 책상을 두드려보며 책상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을 때와 귀를 대지 않고 소리를 들을 때의 비교 ○ 여러 가지 바람 소리 찾기 - 소리 감각 열기 : 주파수를 이용한 청력 테스트(고음, 저음) : 소리만 듣고 대상 알아맞히기(일상 소리 → 바람 소리) : 바람의 여러 가지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이야기 나누기 ○ 다양한 바람 소리를 담은 나만의 풍경 만들기 - 재료 탐색하기 - 다양한 재료를 조합한 우리 가족의 풍경 만들어보기	45 분
	마무리	○ 다 같이 풍경을 매달아 풍성해진 바람의 합주 들어보기 - 부채로 풍경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이 만든 다양한 풍경 소리 들어보기 - 다 함께 매트 위에 누워, 눈을 감은 채 풍경 소리를 포함한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기	10 분



“으악, 소리가 너무 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비 오는 소리!” “천둥!” “태풍!”



“이건 공작새예요. 해파리에요. 코끼리에요.”



“아주 살살 부는 아기 바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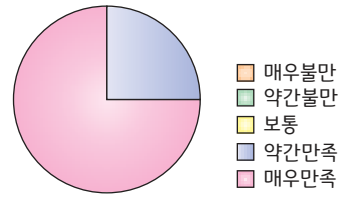


교육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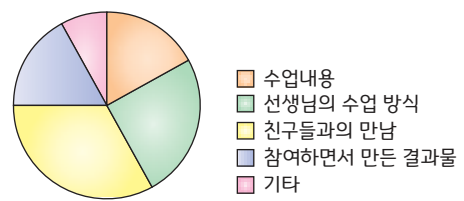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 상반기 초등 고학년 대상 연차시 프로그램
- 설문조사 참여자 수(n) = 8명
- 응답률 = 80% (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 인원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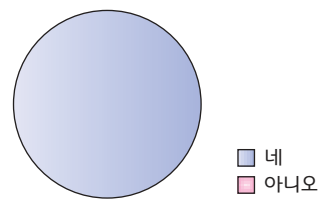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얼마나 만족하나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은가요?



참여후기

선생님 Good!

5주만고 한 8주정도로 하고 싶고 더 다양한 내용은 배워고 싶다.

식경계획이 좋았다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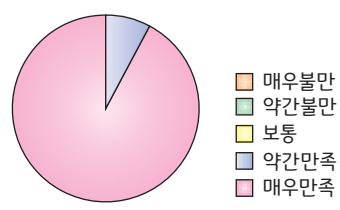
좀더 깊게를 좋겠다.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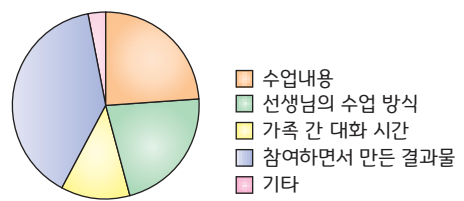
○ 하반기 초등 저학년 가족 대상 프로그램

- 설문조사 참여 어린이 수(n) = 37명
- 응답률 = 88% (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 어린이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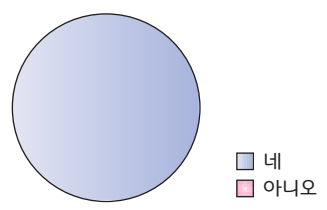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얼마나 만족하나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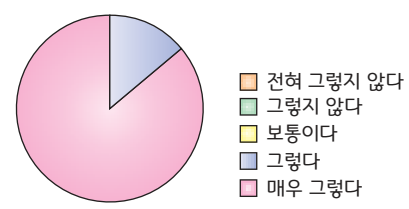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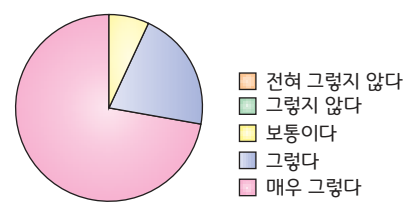
- 설문조사 참여 보호자 수(n) = 29명

- 응답률 = 90% (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 보호자 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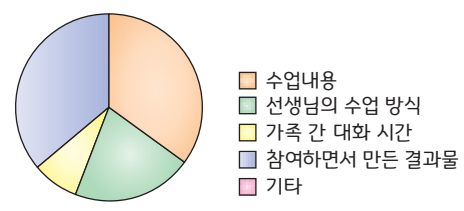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자녀가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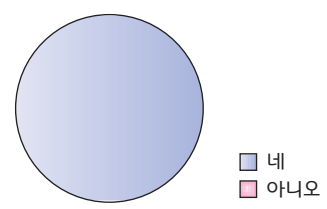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가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참여후기



안녕하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오랜만에 (1월) 해수면 더 더워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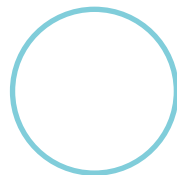
선생님! 수업을 해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다들여! 집에 편하게 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싶어요

아주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들의 모습들















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김해송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원

올해의 첫 달, 양원모 관장님께서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에듀케이터 선생님들에게 각자 어떤 교육 철학을 지녔고, 어떠한 교육 방향을 지향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지만 확고한 상상으로, 세부 내용까지 모두 계획 완료된 교육을 참여자가 제공받는 형태를 넘어 어린이 스스로가 문화의 생산자가 되어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형태의 교육을 꿈꾼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관장님께서 저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고, 그 중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 프로젝트 중 하나를 담은 『신발과 미터자』라는 책이 올해의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발과 미터자』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측정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와 방법을 풀어내려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는 올해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 주제인 ‘바람’과 연계하여 사운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바람을 청각적으로 지각하고 탐색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기존 심화 교육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하나의 전문 영역을 심도있게 파고들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레 진로 체험의 경험을 함께 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나아가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아보자’는 공통적인 미션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떻게’를 함께 고민하며 실행해나갔습니다.

바람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린이들은 사뭇 진지하게 고민했고 교육 강사는 그 논의의 참여자로서, 새로운 질문들을 함께 던졌습니다. 또한 간단한 소품에서부터 사운드 채집과 믹싱을 위한 전문 장비들까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했지요.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어린이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어린이를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창발적 사고와 경계없는 상상력을 믿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행되기 어려운 교육 과정이었겠지요.

이와 같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운드 전문가로서 함께 해주신 유현식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이미 예술가’라는 철학 아래 사운드의 기술적 측면보다 바람에 대해, 소리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통념을 넘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감싸 안아주신 멋진 선생님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활동 하나 하나를 지지해주셨던 김우준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욱 풍성하고 재미난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우준 선생님께서 교육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 초등 저학년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바람과 소리에 대해 탐색하는 ‘바람의 합주’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디 소리가 없는 바람이 누구를 만나는 지에 따라 다양한 바람 소리가 만들어지듯,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하여 나만의 풍경을 만들어보는 과정이 진행되었지요. 어린이들은 원하는 재료를 필요한 만큼 골라 나뭇의 구상과 방식으로 풍경을 엮어내었고, 매 수업마다 참여 어린이마다 각기 다른 소리와 형태의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어린이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고 매주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주었던 임현정 선생님과 유정민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에듀케이터들이 작은 교육일지라도 가치와 메시지를 스스로 찾고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열린 토론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전지영 학예팀장님의 응원과 지지가 이 프로그램에 녹아있습니다. 참으로 뜻있고 감사한 인연들의 정성으로 이번 전문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요. 돌아보면 여러 선생님들께,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배움을 얻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의 소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보셨나요?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세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운 소리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껏 탐험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존중해준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었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고, 서로 공생하는 문화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함께하여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어린이,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바람을 찾아서, 바람을 담다

기획 진행 김해송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원
초빙강사 유현식 |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컬처커넥션 대표
교육강사 김우준, 유정민, 임현정

총괄 양원모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기획책임 전지영 | 학예팀장
운영지원 권혜진, 김지나, 박혜린, 유나리, 조민지, 최미선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
전문국 | 기획운영팀장
강경희, 김수현, 송유진, 유지은, 이영섭, 이학성, 차영근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디자인 오린지 | 사만키로미터
일러스트 김진아 | 사만키로미터

펴낸날 2018년 12월
펴낸곳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소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전화 031.270.8639
팩스 031.283.5364
홈페이지 <http://gcm.ggcf.kr>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본 자료집은 2018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결과자료집입니다.

본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